

무용활동 참가와 자아개념의 관계

유 학 자* · 김 주 희**

Abstract

The Relationship Dancing Activity Participation and Self-concept formation

Yoo, Hak-ja (Kongju University)

Kim, Ju-hee (Kongju University)

Purpose of this research searches effect that dancing major student's dancing activity participation gets dancing activity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formation. First, dancing activity satisfaction's difference by dancing activity participation, second, difference of Self-concept formation by dancing activity participation, third, analyzed if dancing activity satisfaction causes some effect in Self-concept formation. Investigation target comes Dae-jeon city, Chung-chong Province South-North did to area and did to students who major dancing in art high school. Did 400 people by type using Random-sampling. Question enforced by self-administration, and number of validity sampling got 365 (91.25%). Data analysis used statistics method of One-way ANOVA, Multiple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ed SPSS/PC+10.0 program.

Got following conclusion as result that analyze data.

First, dancing activity participation frequency and strength are higher, dancing activity satisfaction whole appeared high.

Second, dancing activity participation period is longer, recognize Self-concept appeared high, and frequency and strength are higher, physical Self-concept appeared high.

Third, educational satisfaction is recognize, social, influence to physical Self-concept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influences to recognize Self-concept and physiological satisfaction appeared that influence to recognize, social Self-concept.

When synthesize such result, it seeks own environment and studying about oneself, intelligent stimulation that attend in dancing activity. Increase an opportunity that get acquainted with a friend taking part often in dancing activity group or the organization, and is considered to become many helps that form dancing major students' Self-concept if make good human relations.

* 공주대학교 무용과 교수

** 공주대학교 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및 고도의 경제성장은 과학기술의 발달 및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국민소득의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의 증대 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신체활동의 기회는 위축됨으로써 신체적 능력이 약화되었으며, 인간의 소외감과 인간의식의 획일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기대수준이나 문화수준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스포츠 등과 같은 예술적·문화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정세미, 1992). 그 중에서도 스포츠와 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특히 과거에 비하여 무용의 대중화와 보편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고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신체활동이 차지하는 역할은 신체적 건강 측면의 공헌 이상으로 정신적 혹은 정서적 측면의 공헌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한 많은 것들이 밝혀져야 한다. 즉 자아개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에 대한 지각과 신체에 의한 특징은 신체발달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용이란 바로 본인의 철학과 의도하는 바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무용이 단순히 삶을 즐기기 위한 단편적인 무용이라면, 현대의 무용은 정상적인 육체의 발달, 리듬감, 공간 형성 능력, 즉흥 능력 그리고 사상과 감정의 풍부한 표현력의 발달을 꾀하는 육체적·정신적인 교육적 가치뿐만이 아닌, 개성을 신장시키고 자아를 확립하며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민주주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사회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 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사상과 감정 즉, 인간의 철학적 사고로부터 연출되어지는 무용에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무용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건강의학 측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무용 참여는 단순히 미용이나 건강의 측면이 아닌, 신체활동을 매개로 한 사회화 현상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에 대한 폭넓은 사고와 개념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무용활동의 참여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고은하(1995)에 의하면 독창적인 표현과 훌륭한 무용은 예술 분야라는 차원에서 볼 때 자아확충과 함께 종합적인 문화를 위한 그 자체의 실현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

용 참여자는 전문기능을 연마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아개념과 사회성 또한 발달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Martha Graham(1958) 역시 신체는 무용의 기술적인 훈련을 받음으로 최대의 자아로 된다고 언급하여 신체와 자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신의 존엄과 고귀함으로 소유케 하며 그를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과 그 행동에 맞는 정서적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해준다.

인간의 자아(self)는 성장과 발달 그리고 경험의 축적으로 생겨나며, 특정 개인이 지니는 자아(self)에 대한 사고와 개념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에 존재하는 중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고 변형된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어 개인의 행동을 통제 혹은 결정한다(조대봉, 1990).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자아개념(self-concept), 즉 자신의 독특한 지각을 내재하며 이는 과거의 경험과 관련되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체활동과 자아의 관계에 있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방지선(1997)은 여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참가와 자아개념 및 신체상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체육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이 일반 여성에 비하여 일반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반면, 가족적 자아개념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는 여성의 인지적 스포츠 참여는 일반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적 스포츠 참여는 사회적 자아개념과 신체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Brown, Morrow와 Livingston(1982)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를 실시한 후의 자아개념 척도에서 실험 전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Collingwood(1976)와 Carkhuff(1972)은 체력훈련이 자아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Hilyer와 Michell(1979) 또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아개념 차원이 유의하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무용참가와 관련하여 서경희(1985)는 “무용 전공학생과 일반학생의 자아개념 연구”에서 여고생 97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무용전공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자기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게 나타나 자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체활동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무용활동과 자아개념 형성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용참가에 관련한 몇몇 연구들에 있어서는 무용참가라는 단일한 변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만을 검증했을 뿐 무용활동 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활동의 참가 경험 정도에 따른 참가 이후의 만족과정의 차이를

살펴보고, 부가하여 무용활동의 만족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무용사회학의 지식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학생의 무용활동 참가(기간, 빈도, 강도), 무용활동 만족(교육적, 사회적, 생리적, 환경적), 자아개념(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무용활동 만족과 자아개념형성의 차이를 밝히고, 무용활동 만족과 자아개념 형성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II . 연구 방법

1. 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무용전공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집 방법은 단순무작위 표집방법에 의해 대전시와 충청남북도 소재를 중심으로 예술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을 표본 추출하였다. 본 연구자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토록 하였으며, 조사한 설문지 400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유효 표본수는 총 365부(91.25%)가 되었다.

2. 측정도구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서 무용활동 만족에 관련된 설문지 도구는 Beard 와 Rapheb(1980)이 개발하고 이종길(1992), 원형중(1994), 정영린(1997)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국문판 ‘여가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근거로 이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아개념에 관련된 설문지 도구로는 가설적 모형을 근거로 송인섭의 3차원적 위계 요인 모형에 따라 송인섭(1995)이 제작·검증하였고, 이러한 자아개념 측정 검사지는 신경주(1987), 강신욱(1992), 강진홍(1998), 진성룡(1999)이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제 2차원적인 자아개념인 인지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을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무용활동 참가 3문항, 무용활동 만족 28문항, 자아개념 요인 27문항으로 총 5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설문 구성의 내용과 문항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주요 구성 지표와 내용

구성지표	구 성 내 용	문항수
무용활동 참가	기간, 빈도, 강도	3
무용활동 만족	교육적, 사회적, 생리적, 환경적	28
자아개념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27
총문항수		58

2) 자료처리 및 통계기법

자료처리는 회수된 자료를 연구자가 검토하여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일부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내용을 토대로, 각 자료를 분류하여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키고 SPSS/PC+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각 가설은 유의수준 $\alpha=.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방법들 중 다중회귀분석은 일괄투입(Enter) 방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무용활동 만족의 차이, 둘째,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자아개념 형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Tukey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셋째, 무용활동 만족이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상관관계분석(Multiple 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학생의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무용활동 만족과 자아개념 형성의 차이를 밝히고, 무용활동 만족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무용활동 만족

무용활동 만족이란 무용활동에 참가해서 개인이 인지하는 만족 정도를 말한다.

<표 2>는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사회적, 교육적, 생리적, 환경적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변량 분석과 기술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빈도는 사회적 요인에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육적 요인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은 개인이 무용을 자유로이 선택하게 되고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발적 집단에 참여하여 느끼는 만족이며, 교육적 요인은 무용활동에 있어 자신들의 환경과 학습, 즉 지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는 5%이상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도에 있어서는 사회적요인과 교육적요인, 생리적 요인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환경적 요인은 5%의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리적 요인은 신체적으로 체력증진, 심폐기능 강화, 근육의 증대를 가져오며 신체 적응을 개발하고 도전하며 저항하는 것이며, 환경적 요인은 참여자가 참여하는 무용활동의 장소와 그 주변의 환경이 아름다울 때 보다 큰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빈도와 강도가 높을수록 무용활동만족도 전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용활동 참가에 있어 높은 빈도와 강도는 무용전공학생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며, 더욱 더 큰 만족감을 줌으로써 흥미와 참여 욕구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기간이 무용활동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오랜 기간 동안의 무용경험은 무용 활동에 만족을 주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현숙(1999)은 종합적인 만족도에서 무용활동 정도의 빈도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간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용전공생은 무용활동에서 성취감 향유 및 개성연출,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표 2.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무용활동 만족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변량분석표

변인		만족도		사회적		교육적		환경적		생리적	
		M	SD	M	SD	M	SD	M	SD	M	SD
기간	3년 이하	3.32	.63	3.57	.68	2.73	.82	3.53	.77		
	3~6년	3.30	.59	3.53	.65	2.76	.78	3.41	.63		
	6년 이상	3.54	.84	3.68	.90	2.87	.83	3.61	.75		
	F	2.571		.745		.535		1.632			
빈도	주4회 이하	3.10	.79	3.29	.94	2.73	.70	3.32	.86		
	주5회	3.26	.52	3.54	.62	2.59	.81	3.48	.69		
	주5회 이상	3.44	.65	3.66	.66	2.84	.83	3.56	.71		
	F	6.875***		5.866**		3.029*		3.445*			
강도	2시간 이하	3.04	.78	3.25	.84	2.61	.85	3.19	.84		
	2~4시간	3.36	.58	3.61	.74	2.68	.74	3.52	.68		
	4시간 이상	3.40	.66	3.63	.61	2.87	.85	3.58	.74		
	F	5.735**		5.435**		3.124*		5.178**			
전 체		3.34	.65	3.57	.71	2.76	.81	3.51	.73		

* P<.05 ** P<.01 *** P<.001

2.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자아개념

<표 3>은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개념을 비교하기 위한 변량 분석과 기술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간과 인지적 자아개념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빈도와 강도에 따라서 신체적 자아개념에서 각각 5%,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간이 길수록 인지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빈도와 강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uley, Palner, Wrightce 그리고 Pfeiffer(1982)는 운동 프로그램에서 참가하는 남·녀 피험자를 대상으로 14주간의 연구결과 개인의 신체활동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실험적 증거를 보여주었으며, 불안수준은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서서히 감소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강시란(1983), 백혜원(1993), 그리고 전수옥(1992) 등은 일반 학생과 무용전공 학

생의 자아개념을 비교하는 횡단적 연구 방법을 통해 무용 참가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무용활동에 오랫동안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다른 집단활동에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질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용참가에 있어서 높은 빈도와 강도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 및 기대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외모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3.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자아개념 형성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변량분석

변인		자아개념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M	SD	M	SD	M	SD
기간	3년 이하			2.90	.71	3.59	.54	3.16	.59
	3~6년			2.95	.59	3.58	.48	3.10	.52
	6년 이상			3.17	.70	3.59	.69	3.16	.78
	F			3.033*		.010		.445	
빈도	주4회 이하			2.93	.92	3.55	.65	2.94	.65
	주5회			2.95	.67	3.53	.48	3.16	.54
	주5회 이상			2.95	.61	3.62	.54	3.21	.60
	F			.033		1.139		3.846*	
강도	2시간 이하			2.90	.86	3.41	.74	2.88	.64
	2~4시간			2.95	.69	3.58	.49	3.10	.52
	4시간 이상			2.97	.60	3.64	.52	3.26	.62
	F			.160		2.953		7.932***	
전 체				2.95	.67	3.59	.54	3.14	.60

* P<.05 ** P<.01 *** P<.001

3. 무용활동 만족과 자아개념의 관계

자아개념은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내용 및 인간 유기체의 모든 국면에 대해 한 개인에게 투영된 자신에 관한 지각의 총체를 의미한다.

<표 4>는 무용활동 만족요인과 자아개념 요인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만족요인($r=.444$)이 약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생리적 만족요인

($r=.413$) 또한 약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로 볼 때 사회적 만족도와 생리적 만족도가 높으면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만족요인과 사회적 자아개념 요인은 서로 관련 있는 구성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생리적 만족요인과 사회적 자아개념 요인 또한 서로 관련 있는 구성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4. 무용활동 만족과 자아개념의 상관관계

	사회적	교육적	환경적	생리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사회적	1.000	.726	.189	.494	.251	.444	.162
교육적		1.000	.142	.495	.281	.526	.259
환경적			1.000	.390	.208	.159	.154
생리적				1.000	.297	.413	.209
인지적					1.000	.280	.327
사회적						1.000	.482
신체적							1.000
Mean	3.34	3.57	2.76	3.51	2.95	3.59	3.14
Std.D	.65	.71	.81	.73	.67	.54	.60

<표 5>는 무용활동 만족에 따른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 회귀 분석 결과이다. 자아개념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사회적 30.3%, 인지적 12.4%, 신체적 7.8%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생리적, 교육적, 환경적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적, 생리적 사회적 만족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적 만족으로 나타났다. Layman(1974), Dishman & Gettman(1980), Sonstroem(1982) 등은 무용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만족을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Clifford, E. 와 Clifford, F.(1967)는 특정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능력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경험은 자아실현, 자기만족,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인지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서는 무용활동에 있어서 자신들의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학습, 즉 지적인 자극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사회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서는 무용활동 집단 또는 단체에 자주 참여하고 친구를 사귀는 기회를

증가시키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체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서는 남녀 구분 없이 신체에 대한 피로회복과 체력증진, 그리고 심폐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신 있는 외모로 활동함으로써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표 5. 무용활동 만족과 자아개념에 대한 회귀분석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β	t	β	t	β	t
사회적	.043	.577	.113	2.056*	-.089	-1.179
교육적	.177	3.109***	.526	11.775***	.259	5.102***
환경적	.119	2.208*	.020	.429	.101	1.843
생리적	.297	5.917***	.188	3.642***	.107	1.835
R^2	.124		.303		.078	
F	4.876		.184		3.395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학생의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무용활동 만족과 자아개념 형성의 차이를 밝히고, 무용활동 만족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대전시와 충청남북도 소재를 중심으로 예술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무용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순무작위표집방법을 이용하여 400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설문작성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에 의거하여 실시하였고, 유효표본수 365(91.25%)명을 얻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활동 참가빈도와 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교육적, 생리적, 환경적 만족도 즉 무용활동만족도 전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활동 참가기간이 길수록 인지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으며, 빈도와 강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지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적, 환경적, 생리적 만족으로 나타났다으며, 사회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교육적, 생리적 만족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적 만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무용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신들의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학습, 즉 지적인 자극을 추구하며, 무용활동 집단 또는 단체에 자주 참여하여 친구와 사귀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무용전공학생의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무용전공학생의 무용활동 참가에 따른 무용활동 만족과 자아개념 형성의 차이를 밝히고, 무용활동 만족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 과제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학생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용활동 참가와 무용활동만족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수 많은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추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을 대전과 충남·북으로 한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확대해서 무용전공자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올바른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무용활동 참가, 무용활동 만족, 자아개념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응답해야 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에 따라 실질적인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심층면담 등의 질적 연구를 병행할 때 무용참가를 통하여 무용활동만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며, 바람직한 자아개념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시란(1983), “한국무용 전공학생과 서양무용 전공학생의 자아개념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강신욱(1992), “스포츠참가와 교육포부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강진홍(1998),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고은하(1995), “무용역할 학습이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현숙(1999), “무용가와 무용교사의 무용활동 실태가 직무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백혜원(1993), “무용전공 여대생의 심리적 특성 비교: 자기신체 평가·자기-존중심·정신건강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경희(1985), “무용전공학생과 일반학생의 자아개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신경주(1987), “교육기대 변량원의 인과관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인섭(1995), “자아개념 진단 검사”,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원형중(1994), “청소년의 중독성 물질남용, 여가참여, 여가권태, 여가만족의 인과 모형 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4, 46-57.
- 이종길 외 3인(1992), “여가활동유형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 체육과학논총, 3(1), 33-44.
- 조대봉(1990), 인간행동 이해와 자아실현, 서울, 문음사
- 정세미(1992), “사회계층적 배경이 무용전공 여고생의 무용역할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수옥(1992), “무용전공에 따른 자아정체감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 정영린(1997),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진성룡(1999), “신체적 여가활동과 교육성취와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Beard, J. G., & Ragheb,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Brown, E. Y. Morrow, J. R., Livingston, S. M.(1982), “Self concept changes in women as result of training”, *Internation Journal of Psychology*, 4, 354-363.
- Carkhuff, R.(1972). *The Art of Helping*. Amherst, M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ess.
- Cliiford, E. & Clifford, F.(1967), “Self-concepts before and after survival train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 241-248.
- Collingwood, T. R(1976), “Effective physical functioning ; a precondition for the helping proces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5, 211-215.
- Dishman. R. K. & Gettman, L. R(1980), “Psychological Influences on Exercise Adherence”,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 295-310.
- Hilyer, J. C. & Michell, w.(1979), “Effect of systematic physical fitness training combined with counseling on the self-concept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427-436.
- Layman, E. M.(1974). *Psychology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In J. H. Wilmore(ED). Exercise and Sports Science Reviews.

- Graham, M(1958), "A dancer's world", *Dance Observer*, 25, January, 5-8.
- Pauley, J. t. palner, J. A. Wrightce & Pfeiffer, G. J.(1982), "The Effects of a 14-Week Employed Fitness Program on Selected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Paramenter", *The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 74, 457-463.
- Sontroem, R. J.(1982). "Attitude and Belief in the Prediction of Exercise Participation", In R. G. Canter & W. J. Gillespies(EDS), *Sport Science: Bridging the Gap*, Toronto: Callamore Press.